

범이론과 여가모형을 적용한 절주프로그램이 문제음주행위와 인지에 미치는 효과

도은영 (광주여대 간호학과)

본 연구는 범이론적 모델과 여가능력모형을 토대로 개발된 직장절주프로그램이 문제음주행위, 음주결과기대와 금주자기효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시도되었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반복 측정 유사 실험연구이었고, 실험기간은 2004년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하는 L직장의 직장인들로서 AUDIT K에서 12점 이상에 해당하는 남성문제음주자 54명으로 실험군 23명, 대조군 31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version 8.2 이용하여 Chi-square test, t-test, ANCOVA, Repeated ANOVA 및 Post-hoc comparison인 scheffe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절주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음주행위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실험군의 문제음주행위점수는 시간경과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사1에서는 유의하게 낮았고, 사후검사2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절주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음주결과기대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실험군의 음주결과기대점수는 시간경과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사1에서는 유의하게 낮았고, 사후검사2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절주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금주자기효능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실험군의 문제음주행위점수는 시간경과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사1에서는 유의하게 높았고, 사후검사2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절주단계를 살펴보면 절주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의 경우 사전조사때는 전속고단계(26.1%), 심사숙고단계(56.5%), 준비단계(17.4%), 실행단계(0%)에서 사후조사1때는 전속

고단계(0%), 심사숙고단계(4.4%), 준비단계(13.0%), 실행단계(82.6%)였고, 사후조사2에는 전숙고단계(0%), 심사숙고단계(4.4%), 준비단계(4.4%), 실행단계(91.2%)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범이론과 여가모형을 적용한 절주프로그램이 직장 내 문제음주자들의 문제음주 행위를 감소시키고, 음주결과기대를 감소시키되 금주자기효능은 증가시켰으며, 절주단계를 긍정적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나 직장인 문제음주자들에게 유용한 간호중재인 것으로 나타났다.